

상무부 :

# 미국, 격상한 관세 조치 리행한다면 단호히 반격

8일,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4월 7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주목했다며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격상한 관세 조치를 리행한다면 중국은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미국

이 중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는 전형적인 일방적 포악 행위이다. 중국이 이미 취한 반격 조치는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국제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을 저지르고

미국의 협박 본질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중국은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측이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이에 맞서 대응할 것이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국은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보호주의는 희망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압박과 위협은 중국과 거래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이 즉각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모든 대 중국 알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며 대 중국 경제 및 무역 압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신화넷

향후 매체 :

## 국가는 미국 관세전쟁에 대응할 능력과 자신감 있다



2024년 10월 28일, 복건중과광심광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 고속칩 및 광통신 핵심부품 프로젝트 생산작업장에서 로동자들이 한창 광칩과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 복건 황석넷

최근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 8일자 향향의 여러 신문들은 국가는 미국의 관세 램발 조치에 맞설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론평했다. 향향 《문화보》는 론평에서 "미

국이 발기한 관세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이를 태연히 대응할 실력과 능력,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론평은 회풍은행이 최근 발표한 <신흥시장 투자이향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촉진 조치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고 특히 기술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향 《대공보》는 "미국은 지난 8년 동안 중국을 압박하려 했으나 그 결과 중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며 "중국은 이번에도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 국제방송

로르니아 매체 :

## 미국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탈탈라화' 추세 가속화



3월 1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브리테인콜럼비아성 주류전문점의 점원이 화물칸에서 미국 주류 제품을 철수하고 있다. / 신화넷

로르니아 경제전문매체 《부르사》는 7일 미국의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탈탈라화' 전망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탈라화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시

기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만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부과한 관세정책으로 인해 탈라 지수가 대폭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정부의 새로운 립장에 일부 국가 정부에서는 탈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자는 문이 재점화됐다. 유럽국가 지도자들은 이를 유로화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더 통합되고 유동성이 강한 시장 구축을 통해 유로화가 탈라의 진정한 대항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신화넷

중국 :

## 대 한국 정책, 연속성·안정성·확실성 유지

외교부 대변인 립검은 7일 중국의 대 한국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 확실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립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한국 대통령직 파면 관련 질문에 "이는 한국의 내부 사무이며 우리는 한국이 질서있게 국내 정치 일정을 추진해 정국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립검은 또 중한은 이사갈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 수교 초심을 굳게 지키면서 선린우호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호혜상생 목표를 견지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 한국정부, 대통령 선거 6월 3일 실시 확정

8일,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국무총리인 한덕수는 오는 6월 3일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조기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한덕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회의는 또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 윤

석열을 탄핵하는 결의를 채택한 즉시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되었다. 법률에 따라 한국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바 늦어도 6월 3일에 선거를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선거일 50일전에 선거일을 선포해야 한다. / 신화넷

## 트럼프 : 관세정책 중단 않을 것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7일 이른바의 '상호관세'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방담한 뒤 언론에 "당장은 관세정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며 "많은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그와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정책 강행과 협상, 이 두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유럽연합이 발

한 미국과의 상호관세 면제 제안을 거부했다며 "안된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무역 문제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정부 관리들은 7일 현재 50여개 경제체가 관세정책에 대해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시사뉴스 사이트 AXIOS는 상황을 잘 아는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이른바 접촉은 진정한 협상구조나 쌍방향 협력이 부족해 막담하다고 보도했다. / 신화넷

## 미국 국방 예산 처음 1조달러 이를 것

미국 국방장관 허그세스는 7일 미국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1조달러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허그세스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다가온다: 첫번째 1조달러의 국방부 예산"이라고 썼다. 허그세스는 트럼프행정부가 "미국군을 재건하고 있다. 그리고 빠른 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상력과 전투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명하게' 모든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화넷

이날 일찍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회견할 때 미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1조달러의 국방 예산을 비준"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연도 국방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2월, 당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2025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발표된 새 회계년도 국방 예산은 약 8,950억 달러였다. / 신화넷

전 미국 재무장관 :

## 미국, 경제침체로 200만명 실업당할 수도



4월 5일, 미국 전역에서 '그만!'이라는 함의활동을 벌이며 트럼프의 일련의 정책에 분노를 표시했다. 사진은 시위자들이 '추가 관세 부과 반대' 문구가 새겨진 펭귄 피켓을 들고 나선 모습이다.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겸 전 미국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는 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이 경제침체로 나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200만명의 미국인이 실업당하고 가구당 최소 5,000달러의 소득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앞으로 몇주 동안 '매우 중요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명한 방법은 '이미 발표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국제방송